

‘奇’字 評語 作品에 대한 一考

- 『小華詩評』과 『詩話叢林』을 대상으로 -

정시열*

<차례>

- I. 序論
- II. ‘奇’字 評語 作品의 美感
- III. ‘奇’字 評語와 文學的 즐거움
- IV. 結論

<국문초록>

본고는 風格批評에 사용된 評語에 대한 연구로서 洪萬宗(1643-1725)이 편찬한 『詩話叢林』(1712)과 그의 시화집인 『小華詩評』(1675)을 텍스트로 하여, ‘奇’字 평을 받은 詩의 美感 및 이들 시가 주는 文學적 즐거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奇’字 평어와 관련된 작품에서 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특이하다는 점인데, 이것은 새로움·신기함·애매함·기괴함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이함은 표현 방식상의 독특함과 비현실성에서 오는 경이감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評語에 반영된 기발한 시적 발상이나 함축적이고 모호한 표현에서 오는 多義性 등은 표현 방식상의 독특함에 속하며, 시적 분위기가 기괴하다든지 상상적인 요소를 통해 강한 氣勢感을 표출하는 것은 비현실성에 기인한 경이로움에 해당한다.

또한 ‘奇’字 평을 받은 시들은 시인의 文學적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 시인이 시를 짓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즐거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奇’字 평어의 시가 주는 文學적 즐거움은 일상에 기반을 둔 독창성과 고양된 정서를 거리낌없이 표출하는

*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데서 오는 심리적 淨化感(catharsis)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풍격비평, 시화, 흥만종, 소화시평, 시화총림

I. 序論

일반적으로 風格批評이란 1·2·4자로 구성된 함축적인 評語를 통해 詩를 평하는 비평 방식이다. 본고에서는 洪萬宗(1643-1725)의 시화집인 『小華詩評』(1675)과 그가 편찬한 『詩話叢林』(1712)을 텍스트로 하여, 詩話에 빈번히 등장하는 ‘奇’字 평어 작품의 美感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奇’字 평을 받은 작품이 주는 문학적 즐거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내면에 쌓인 자신의 정회를 짧게는 20字에서 길게는 56字의 형식으로 풀어낸 결과물이 近體漢詩라면, 그 속에는 당연히 인간의 복합적인 심리가 집약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성격의 한시를 한 글자 내지 두 글자의 평어로 더욱 압축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풍격평어라는 사실은 한시를 이해하는 것보다 풍격평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래서 풍격비평은 치밀한 분석이나 논리적 실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 왔다.

이처럼 과거에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태도는 다분히 직관적이고 인상적인 면이 없지 않다. 평어를 보아도 그 자체가 추상적인 비유이거나 막연한 언술로 되어 있어서 원래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선인들의 시 감상 수준이 높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연구자들에게 용어의 이러한 추상성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과거의 비평 태도가 주관적이고 인상적이라 해서 이들 비평이 그 자료적 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¹⁾ 즉

풍격비평의 난해성과 연구 가치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풍격비평이 비평의 한 양식으로 자리잡아 중국과 우리 나라에서 널리 행해져 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나름대로의 준거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先人들이 일정한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비평을 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홍만중은 보편적으로 널리 읽히던 시화를 모아 『詩話叢林』(1712)을 편찬했으며, 또한 여기에 짝을 이루는 자신의 시화집 『小華詩評』(1675)을 이보다 훨씬 이전에 저술했다. 『小華詩評』은 上卷과 下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인된 異本만도 45종²⁾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 비평적 가치를 널리 인정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비평 대상이 된 시인들의 신분이 다양하며, 주로 사용된 비평 방식이 풍격비평으로서 등장하는 풍격 평어의 종류나 수가 실로 방대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詩話叢林』은 고려와 조선의 시화집 24편을 홍만중이 자신의 비평적 안목에 바탕해서 4권 4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그 序文에는 우리 나라에 一家를 이룬 시인에 비해 훌륭한 詩評家가 부족했으므로 후세를 위해 시화를 정리한다는 이 책의 편찬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詩話叢林』의 편찬은 『小華詩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나라 詩話史에서 여러모로 典型性을 지닌 이들 두 시화집을 '奇'字 평어 연구의 텍스트로 선정했다. 풍격비평에 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과거 비평자의 안목에 기대야 하므로 본고에서도 『小華詩評』과 『詩話叢林』에 소개된 비평자의 안목 즉 풍격평어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奇'字 평어의 경우 1·2자류가 가장 많으므로 이 두 가지를 논의 대상으로 삼겠다.

1) 정 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p.169.

2) 김선기, 『小華詩評 研究』,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1993, pp.32-34.

본고의 제Ⅱ장에서는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奇’字 평어 작품의 특성 즉 미감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풍격을 美의 종류를 의미하는 말로 볼 때 풍격에 관한 연구는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美學이 된다.³⁾ 그러므로 풍격평어의 특성은 바로 그 풍격의 美感이라 할 수 있는 셈이다. 각각의 평어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찾는 것은 풍격비평의 성립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奇’字 평어의 작품에서 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특이하다는 점인데, 이것은 새로움·신기함·애매함·기괴함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이함은 표현 방식상의 독특함과 비현실성에서 오는 경이감으로 양분할 수 있다. 詩語에 반영된 기발한 시적 발상이나 함축적이고 모호한 표현에서 오는 多義性 등은 표현 방식상의 독특함이라 할 수 있고, 시적 분위기가 기괴하다든지 상상적인 요소를 통해 강한 기세감을 보이는 것은 비현실성에 기인한 경이로움이라 할 수 있는데, 제Ⅱ장에서는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이러한 특성들을 살펴보겠다.

『小華詩評』과 『詩話叢林』에 등장하는 풍격평어 ‘奇’字는 그 종류나 사용 빈도가 ‘淸’字類 평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렇다면 ‘奇’字 평어와 관련된 작품이 이처럼 많이 창작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분명히 ‘시인의 마음을 끄는 어떤 힘’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奇’字 평어의 특성에 내재된 마음을 끄는 이 힘의 실체를 문학적 즐거움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앞서 제Ⅱ장에서 고찰한 바 있는 ‘奇’字 평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즐거움은 일상을 소재로 새로운 표현을 창조하는 데서 오는 독창성, 그리고 기괴하고 비일상적인 자신의 정서를 거리낌없이 표출하는 데서 오는 카타르시스, 즉 淨化感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小華詩評』과 『詩話叢林』에 등장하는 ‘奇’字類 평

3) 차주환, 『唐代的 風格論(上)』, 『心象』 제5호, 심상사, 1974, p.138.

어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奇'字類>

15種 47回 54首

奇(19/21) 奇巧(2/2) 奇健(7/9) 奇絶(2/4) 奇壯(3/3) 奇拔(1/1) 奇爽(1/2) 奇傑(3/3) 奇悍(1/1) 奇逸(1/1) 奇重(1/1) 奇偉(2/2) 奇古(1/1) 奇怪(2/2) 奇妙(1/1)

II. '奇'字 評語 作品의 美感

인간은 남들과 같은 자신의 모습에 안도하고 남들과 다른 모습에 긴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과 달라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인간은 두려움이나 슬픔을 싫어하면서도 공포 영화나 비극을 계속해서 찾는다. 이처럼 긴장하면서도 추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면서도 계속 찾게 되는 것은 왜인가? 그것은 아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편하게 여기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내면 깊은 곳에선 '奇'한 것을 갈망하는 인간 심리의 兩價性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특이한 것, 신기한 것, 애매한 것 등을 보면 '奇異하다', '奇怪하다', '奇妙하다' 등 '奇'字가 들어간 표현을 흔히 사용하는데, 그 용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마찬가지로 『中文大辭典』(中華學術院印行)을 보더라도, “異也(이상하다), 異之也(이상하게 여기다), 奇怪也(기괴하다), 出衆也(뛰어나다), 甚也(심하다), 長也(길다), 秘也(비밀스럽다), 擊其不備也(불시에 공격하다), 權詐也(교묘히 속이다), 奇邪不正也(바르지 못하다)” 등 '奇'字의 의미는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의미들을 종합하면, 신기하고, 진부하지 않으며, 뛰어나고, 난해하다는 뜻

이 ‘奇’字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詩評에서 어떤 시적인 특성에 대해 ‘奇’字評을 내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 시대 대표적 시화집인 崔滋의 『補閑集』 「序文」에는 ‘奇詭’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물론 여기에 언급된 내용이 ‘奇’字類 평어 일반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최소한 ‘奇’字 평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文이라는 것은 도를 밟는 문이므로 바르지 못한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氣를 돋우고 말을 거침없이 해서 때로 듣는 이들을 감동시키고자 할 때는 더러 험괴한 말을 한다. 허물며 시를 짓는 것은 比·興·諷諭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奇詭한 데 의탁한 뒤에야 그 氣가 씩씩해지고, 그 뜻이 깊어지고, 그 말이 분명해져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고, 은미한 뜻을 드러내어 마침내 바른 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⁴⁾

위의 인용문에서는 ‘奇詭’한 시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시의 氣·意·辭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시가 ‘奇詭’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진부하고 상투적인 데서 벗어나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새롭고 파격적인 詩作에 대한 촉구라 할 수 있다. 이런 시가 지어졌을 때 사람들이 ‘正’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正’이란 마음이 안정된 평정 상태를 의미한다.

‘奇’字 평어와 관련된 작품은 위의 『補閑集』 「序文」에서의 지적처럼 유용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시인이 경계해야 할 점도 있다. 申景濬(1712-1781)의 「詩則」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文者, 蹈道之門, 不涉不經之語. 然欲鼓氣肆言, 竦動時聽, 或涉於險怪. 況詩之作, 本乎比興諷諭, 故必寓託奇詭, 然後其氣壯, 基意深, 其辭顯, 足以感悟人心, 發揚微旨, 終歸於正.(崔滋, 『補閑集』 「序文」)

세간에 시를 논하는 이들이 平淡을 주장하는 자는 “奇工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고, 奇工을 주장하는 자는 “平淡은 맛이 없다.”고 한다. 대개 平淡의 결점은 맛이 없는 데 쉽게 이르고, 奇工의 결점은 자연스럽지 못한 데 쉽게 이른다.⁵⁾

위의 인용문은 ‘奇’字 평어의 작품에 나타나기 쉬운 현상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奇’字 평어와 관련된 시에는 기이하고 특이한 詩想을 포착한 것이 많으며,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독자적인 경지에 이르러 사람들의 의표를 찌르면서 남들이 말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⁶⁾ 이러한 특성들의 근저에는 난삽한 典故 및 험박한 시어의 사용 그리고 奇異하고 奇拔한 意境의 창출과 같은 江西詩派의 詩風이 자리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奇’字 평어와 관련된 작품의 시인 중에는 海東江西詩派에 속하는 인물이 적지 않다.⁷⁾ 그러므로 ‘奇’字評을 받은 작품의 특성을 논할 때 이런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처럼 ‘奇’字 풍격은 이전의 표현과는 차별화된 새로움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러한 作詩法이 성공했을 때는 참신함을 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소가 어릴 때 用事를 즐겨 詩語가 ‘奇險’하여 보는 자가 번번이 읽기 어려웠다.”⁸⁾고 한 曹伸의 지적처럼 오히려 부자연스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奇’字 평어의 美感을 독특한 표현 방식과 비현실성에 기인한 경이로움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
- 5) 申景濬, 『旅菴遺稿』 卷8, 『旅菴詩則』, 世之論詩者, 主平淡者, 謂奇工非天然, 主奇工者, 謂平淡爲無味. 盖平淡之失, 易至於無味, 奇工之失, 易至於非天然.
- 6) 임종욱, 『중국문학에서의 문장체제 인물 유과 풍격』, 이회문화사, 2001, p.477 참조.
- 7) 『海東江西詩派研究』(이종묵, 태학사, 1995)에서는 江西詩派의 시적 특성 중 시를 奇異하게 만드는 요소에 대한 논의가 곳곳에 나온다.
- 8) 次韶少時, 喜用事, 下語奇險, 見之者輒難讀.(曹伸, 『謏聞瑣錄』 卷下 第19話)

1. 獨特한 表現 方式

‘奇’字 평어와 관련된 시에서는 우선 남다른 독특함을 추구한 부분이 관심을 끈다. 작품을 부각시키는 이러한 특징은 시인의 노력의 결과이자 자기 재능의 과시로 볼 수 있다. 시인은 새로운 시적 표현을 통해 다른 작품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다음 예문은 평범하고 관습적이며 익숙한 것을 거부하고 새롭고 독창적이며 낯설지만 진실을 반영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심리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세속을 초월한 풍류를 지닌 사람은 남과 같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동료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하지 않으려고 하며, 동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좋아한다. 평범하기보다는 차라리 기이하고, 비르기보다는 차라리 치우치고, 크고 거짓되기보다는 차라리 작고 참되고자 하는 것이다.⁹⁾

그럼 ‘奇’字 평어 작품에 나타난 독특함을 詩語에 반영된 奇拔한 詩的 發想과 複合的 含意에 의한 多義性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1) 詩語에 反映된 奇拔한 發想

각각의 시에는 시상 전개에의 시작이 되는 착안점이 있다. 이러한 착안점을 시적 발상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의 독창성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作詩上의 이러한 특성들은 시인과 독자 사이의 매개체인 시어 사용에 그대로 나타난다. 특정한 사물을 대했을 때 그 특성을 간파하고, 그

9) 夫人抱邁往不屑之韻，恥與人同，則必不肯言儔人之所言，而好言其所不敢言，不能言。與其平也。寧奇，與其正也，寧偏。與其大而僞也，毋寧小而真。(沈守正，「凌士重小草小引」，『雪堂集』第5卷，『明代文學批評資料彙編』，臺北：成文出版社，1979.)

것과 의미상 관련성을 지닌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기발함이 시어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어를 봤을 때 평소 간과했던 그 사물의 특징적인 면모를 연상하게 된다.

‘奇’字 평어의 시가 독특한 것은 平地突出한 새로운 것을 내용으로 해서가 아니라 사물을 대하는 시각에 변화를 가함으로써 정형화된 사고의 틀을 탈피하고 개성적인 표현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심한 관찰력에 바탕한 새로움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奇拔한 시적 발상이 시어 사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실제 작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 작품은 李荇(1478-1534)의 <溪山卽事>라는 작품으로 ‘奇巧’하다는 평을 받았다.

鑿泉偷岳色 샘을 파서 산 빛을 훔치고,
移石殺溪聲 돌을 옮겨 시냇물 소리를 줄인다.¹⁰⁾

이 시 제1구에서는 ‘偷’字에 반영된 시적 발상이 흥미롭다. 사람이 샘을 파서 물이 고이면 그 물에는 실물과 똑같은 모습의 산이 비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세수를 하거나 밥을 짓는다면 산빛을 그대로 취하는 샘이 된다. 여기서 사람이 샘물을 사용하는 모습을 마치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듯 ‘偷’字로 표현했기에 묘한 시적 발상이 된다. 즉 물의 投影性에 착안한 기발한 시상 전개가 ‘偷’字에 나타나 있는 샘이다.

제2구에서는 산에 은거한 사람이 돌을 옮겨 물소리를 줄인다는 해석은 너무 평범해서 奇巧한 시구가 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주체를 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흐르는 물이 소리를 내는 것은 바위 등 주변 사물과

10) 『小華詩評』上卷 第111話.

의 마찰 때문인데, 긴 시간 동안의 흐름이 돌을 깎아 놓고 옮겨 놓음으로써 그 물소리가 점점 잦아들게 되었음을 읊었다. 이런 해석을 위해서는 ‘殺’이라는 시어를 ‘죽이다(音:살)’가 아닌 ‘줄이다(音:쇄)’로 봐야 한다. 평범한 물의 흐름을 보면서 그 속에 내재된 속성을 간파한 시인의 관찰력이 잘 나타난 부분이다.

이처럼 위의 두 시구는 사물을 바라보는 예리한 시각에 기반을 두고 독특한 시적 발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儻’·‘殺’이라는 두 시어에 반영되었기에 ‘奇巧’하다는 평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巧’字는 시어의 활용 능력과 같은 作詩의 측면을 염두에 둔 평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세심한 관찰자적 시각이 돋보이는 李詹(1345-1405)의 시이다.

蝸引苔侵壁 달팽이 질질 끌고 가자 이끼가 벽을 침범하고,
蛙鳴水滿庭 개구리 울자 물이 뜰에 가득 고였다.¹¹⁾

이 시는 첫째 구의 ‘引’字가 ‘奇’字評을 받았다. 여기서 ‘引’字는 달팽이가 집을 끌고 가는 모습을 형용한 시어이다. 일반적으로 집은 고정되어 있고, 사람이나 동물이 집을 드나들며 움직인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연체동물인 달팽이는 몸의 수축·확장 운동을 통해 집을 스스로 끌고 다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달팽이’라는 어휘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뇌리에 떠오르는 생각도 집과 몸이 하나로 붙어 있다는 것, 다리가 없지만 뱀처럼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질질 끌고 다닌다는 점이다.

‘引’字에 ‘끌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 글자는 달팽이의 움직임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 ‘引’字가 생물의 움직임 그것도 달팽이의 움직임

11) 曹伸, 『謏聞瑣錄』 第11話, 『詩話叢林』 第1卷.

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 글자의 기존 용례를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의외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외성은 신선함으로 이어져 시인의 기발한 시적 발상을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시인은 달팽이의 특징적인 점을 정확히 포착한 후 그것을 ‘리’자라는 시어를 통해 형용함으로써 사람들이 달팽이의 모습을 보고 가졌던 인상을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각을 달리한 새로운 시적 발상이 시어에 반영된 경우 그 시어는 ‘奇’자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

2) 複合的 含意에 의한 多義性

숨췌이란 작품의 행간에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 풍격상의 특성이다. 시인은 함축을 통해 작품의 眞意를 숨기고 독자 스스로 그것을 파악하도록 만든다.¹²⁾ ‘奇’字 평어의 시 중에는 복합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시적 해석이 多義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함축미로 인해 시의 의미는 애매모호해지고, 그 결과 평범하지 않은 ‘奇’字 풍격의 시가 되는 것이다.

문학 작품은 언어로 되어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어 밖에 있다. 여기서의 밖이란 언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언어라는 형식의 틀을 깬 때 도달할 수 있는 言外之致의 경지이다.¹³⁾ 함축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言外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인의 의도가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시일수록 “莫見乎隱, 莫顯乎微.”(隱보다 드러남이 없으며, 微보다 나타남이 없다.)¹⁴⁾라는 말처럼 더욱 눈에 띄고 주목을 받는

12) 임종욱, 앞의 책, 이회문화사, 2001, p.504 참조.

13) 정하영, 「古典批評用語에 대한 이해와 近代의 문제」, 『중국어문논총』 제20집, 중국어문연구회, 2001, pp.366-367 참조.

14) 『中庸』 第一章.

법이다. 그러므로 함축을 통해 시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도 作詩上의 독특한 표현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실제 작품을 통해 ‘奇’字 평어와 관련된 시의 복합적 습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음 작품은 李苻이 명나라 사신의 원접사로 갔을 때 지은 시로서 ‘奇語’라는 평을 받았다.

명나라 사신 당고가 왔을 때에 용재는 빈상이 되고, 정사룡·소세양·이회보는 종사관이 되었다. 명나라 사신은 용재의 외모가 추한 것을 보고는 항상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했다. 명나라 사신이 인주에 도착하여 백상루에 올라 오언율시를 지어서 빈상에게 보내어 화답하게 했다. 용재는 술이 잔뜩 취해 자고 있었으므로 종사관들이 먼저 지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용재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며 보고서 말하기를, “이 늙은이가 다시 짓겠노라.” 하고, 당장 불러 써서 올렸으니 그 坤字를 압운하여 이르기를,

二水分爲坎 두 물이 나누어져 감괘가 되었고,
三山斷作坤 세 산이 끊어져 곤괘가 되었네.

명나라 사신이 보고서 칭찬하기를, “참으로 奇語다.”라고 하며 더욱 예우했다.¹⁵⁾

이 시화는 ‘奇’字 評語와 관련된 시가 사람 간의 관계는 물론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화를 보면 중국 사신이 이행의 용모가 추하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天使唐阜之來, 容齋爲僮相, 鄭士龍蘇世讓李希輔, 爲從事. 天使見容齋貌醜, 常厭近接. 天使行到安州, 登百祥樓, 賦五言律, 送僮相, 使和之. 容齋方醉睡, 諸從事, 先構以待. 容齋覺睡揩眼視之, 乃曰, 老夫當改下, 卽口號書呈, 其押坤字曰, 二水分爲坎, 三山斷作坤. 天使見之, 稱賞曰, 眞是奇語, 更加禮遇.(金得臣, 『終南叢志』第二話, 『詩話叢林』第四卷)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양국이 서로의 외교적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행은 잘해보자는 의도에서 시를 통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이러한 시적 의도를 사신이 정확히 파악하고는 그 손을 잡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행이 중국 사신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시를 지었을 수도 있다. 그는 大國의 사신임을 내세워 僮相인 자신을 무시하는 唐皇의 태도가 내심 못마땅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이 시구를 이해하시겠소?’ 하는 식의 시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의 표면적 의미는 두 개의 물이 나누어진 형상은 周易의 ‘坎’卦와 같고, 세 산이 끊어져 있는 형상은 周易의 ‘坤’卦와 같다는 것이다. 이처럼 山水를 보고 그 형상을 卦에 비유해서 읊은 것인데, 여기서 시인이 왜 하필 周易의 卦를 시어에 사용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사신 唐皇가 단지 시의 표면적 기발함 때문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행을 예우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시에는 표면적 의미 외에 다른 含意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含意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시구를 결합해서 보는 鑑識眼이 필요하다.

坎卦와 坤卦가 합쳐지면 比卦가 된다. 比卦의 「傳」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비괘는 「序卦傳」에 “여러 사람은 반드시 친하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비괘로 받았다.”고 하였다. 비는 친애하고 도와주는 것이니, 사람의 무리는 반드시 친애하고 도와준 뒤에야 서로 편안할 수 있다.¹⁶⁾

16) 比, 序卦, 衆必有所比. 故受之以比. 比, 親輔也, 人之類, 必相親輔然後能安.(『周易』第4卷, 「比」 「傳」)

이처럼 比卦에는 사람 간에 서로 친애하고 협조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신은 이행의 시에 함축된 이러한 의미를 알아챘기에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반전은 시의 意境을 시어의 표면에 노출시키지 않는 ‘含蓄不露’의 자세와 시를 이해함에 있어 詩語에 얽매임 없이 시인이 표현하고자 한 본래의 意境을 찾으려는 자세가 어우러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¹⁷⁾ 결국 이 시가 ‘奇語’라는 평을 받은 것은 시어에 함축된 의미 때문이다.

2. 非現實性에 基因한 驚異感

앞서 살펴본 ‘奇’字의 다양한 용례에서 알 수 있듯, ‘奇’字 평어와 관련된 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른 평어의 시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다. 이러한 시적 특성은 시가 주는 전반적인 느낌을 경이롭게 만든다. ‘奇’字 평어의 시에 나타난 이 같은 경이로움을 기괴한 시적 분위기와 상상력에 바탕한 기세감이라는 두 측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1) 奇怪한 詩的 霧圍氣

‘奇’字 평어와 관련된 시에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그 분위기가奇怪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괴함은 근본적으로 시적 소재의 영향이 크다. 전설적·비현실적·미신적 소재, 신령스럽거나 신비스러우며 공포감을 주는 소재에 기대어 현실의 사건이나 사물을 詩化함으로써 현실을 초월한 환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詩想이 전개되는 느낌을 준다. 시적 분위기

17) 박수천, 『徐居正의 文學批評』, 『徐居正 文學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p.176 참조

의 기괴함은 이 같은 공간적 특성에서 감지된다. 그럼 실제 작품을 통해 ‘奇’字 평어의 시에 나타난 이러한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음은 松溪에 다리 놓는 광경을 보고 지은 車天輅(1556-1615)의 시로서 ‘奇語’라는 평을 받았다.

젊었을 적에 송계에 돌을 깎아 다리 놓는 것을 보고 시를 짓기를,

靑山飛禹斧 靑산에 우임금의 도끼가 날아다니고,
白石落秦鞭 백석에 진나라의 채찍을 내려친다.

이는 고금에 신기한 말이다.¹⁸⁾

이 시는 대규모 役事 현장을 목격했을 때 인간이 느끼는 驚異感을 奇怪한 시적 분위기를 통해 표현했다. 이처럼 시가 기괴한 것은 詩評에서도 지적했듯이 시어 사용에 원인이 있다. 첫째 구의 ‘禹斧’는 옛날 大禹가 治水 사업을 벌일 때 龍門山을 뚫어 물길을 내는 데 사용한 도끼를 가리킨다. 그리고 둘째 구의 ‘秦鞭’은 진시황이 석교를 만들고 바다에서 해 뜨는 곳을 보려고 하여 神人이 돌을 몰고 바다로 가는데 돌들이 빨리 가지 않으면 내리친 채찍을 뜻한다. 물론 만리장성을 축조할 때 백성들에게 휘두른 채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설적 경이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前者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여기서 ‘禹斧’·‘秦鞭’은 비현실적인 신비감이 강조된 시어인데, 이것은 ‘飛’·‘落’ 등 ‘豪’字 평어의 시에서 등장할 법한 역동적 시어와 결합함으로써 시의 분위기를 더욱 공포스럽고 기괴한 방향으로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시어가 ‘奇’하다는 풍격평은 바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것이다.

18) 少時，見松溪伐石作橋，有詩曰，靑山飛禹斧，白石落秦鞭。此古今奇語。(李暉光，『芝峯類說』第107話，『詩話叢林』第3卷)

2) 想像力에 바탕한 氣勢感

인간의 상상력은 현실적 모습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하여 과장된 氣勢感을 줄 수 있다. '奇'字 평어와 관련된 시의 시적 소재는 현실에 바탕하고 있지만 여기에 시인의 상상력에 힘입은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시에 힘이 실리게 된다. 이러한 기운찬 느낌은 시인의 氣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豪'字 평어의 시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豪'字 평어의 시가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시인의 기상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奇'字 평어의 시에서는 비현실적이거나 사실성이 무시되는 시상 전개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 실제 작품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겠다.

다음 작품은 金淨(1486-1520)의 <叢石亭>시로서 '險絶'·'奇語'라는 평을 받았다.

千古高阜叢石勝	천년토록 높은 언덕에 자리한 빼어난 총석정
登臨寥落九秋懷	올라와 굽어보니 이 쓸쓸함 가을의 회포인가.
斗魁散彩隨滄海	북두성에서 광채를 흩어내어 창해에 이었고,
月宮借斧削丹崖	달에서는 도끼 빌려 붉은 절벽 깎았도다.
巨溟欲泛危巒去	큰 바다는 높은 뿔부리를 띄워 보내려 하나
頑骨長衝激浪排	굳센 뼈대는 거친 파도 밀어내며 오랜 세월 부딪쳤네.
蓬島笙簫空淡好	봉래산 신선의 피리소리 부질없이 기다리며
夕陽搔首寄天涯	석양에 근심하며 하늘 끝에 서 있노라. ²⁰⁾

이 시는 시인의 상상력에 바탕한 강한 기세감을 반영한 작품이다. '險絶'이라는 평어가 말해주듯 거칠고 험박한 시어에서 창출되는 기이한 의

20) 『小華詩評』下卷, 第41話.

경은 경이로운 느낌을 준다. 首聯에서는 총석정의 적막한 가을 정취를 읊었다. 태고적부터 있었을 이 斷崖는 유구한 시간성을 지닌 경물로서, 내년 가을을 기약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깨달은 시인에게 쓸쓸한 정취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총석정의 모습을 묘사한 頷聯에서는 시인의 상상력에 근거한 ‘斗魁’·‘月宮’ 등의 시어와 웅장한 자연 경물인 ‘滄海’·‘丹崖’ 등의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實景을 능가하는 힘찬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 구마다 ‘散’과 ‘隨’, ‘借’와 ‘削’이라는 두 개의 술어를 사용하여 역동적 기상을 부각시킨 점도 눈에 띈다.

頸聯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파도의 침식 작용을 견뎌낸 海蝕崖의 모습을 시인의 상상을 통해 읊고 있다. 바다 저 먼 곳으로 밀어낼려는 파도와 밀리지 않으려는 절벽의 대립, ‘危巒’·‘頑骨’ 등의 험박한 시어 사용, 그리고 ‘泛’과 ‘去’, ‘衝’과 ‘排’ 등의 이중 술어를 통해 시는 예사롭지 않은 의경을 창출하며 강한 기세감을 지니게 된다.

마지막 尾聯에서는 봉래산 신선을 기다리며 이상향을 지향하는 시인의 현실 초극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여기서 석양에 시름하는 시인의 침울함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상상의 산물임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정서이다.

Ⅲ. ‘奇’자 評語와 文學的 즐거움

‘奇’字 평어와 관련된 시를 읽어 보면 분명히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것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참신한 표현이 시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시 전체가 아닌 특정 시어나 시구가 새롭더라도 그 작품 자체가 달라

보이는 법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시는 독자에게는 신선한 느낌을 주고, 시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창작의 기쁨을 선사한다. 이처럼 시인은 시를 통해 일종의 문학적 즐거움인 창작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를 쓰게 된다. 창작에서 오는 희열이란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자기 所作에 대한 감동이므로 시인은 작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시를 감상하는 독자가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奇'字 평어와 관련된 즐거움을 일상에 기반한 독창성의 구현과 고양된 정서의 표출이 주는 淨化感(catharsis)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日常에 基盤한 獨創性의 具現

문학에 있어서 독창성은 즐거움의 근원이 된다. 작가 스스로가 자신의 작품에서 특징적인 면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의 창작 활동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시를 짓는 데 있어서 독창성의 원천은 우리의 일상에 있다. 아무리 특이한 내용을 읊은 시라고 하더라도 그 근본은 결코 인간의 삶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으며, 그 어떤 상상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반은 사람에게 있다. 이러한 독창성은 개개인의 창조력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창조력이 뛰어난 시인은 일상적인 사소한 것에서 참신하고 새로운 면을 발견해낸다. 다음 예문이 이러한 점을 시사한다.

세상 사람들은 평범한 것을 싫어하고 新奇한 것을 좋아하는데 이는 천하에서 가장 신기한 것은 평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해와 달은 늘 있는 것이지만 예로부터 항상 새롭고, 배와 비단, 콩과 조는 항상 있지만 추우면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배고프면 배부르게 할 수 있으니, 또한 축하하지 않은가! 이렇듯 新奇함은 바로 평범함 속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평범함 밖에서 新奇함을 구하니, 이것이 어찌 新奇함

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²¹⁾

이 예문에서도 잘 나타나듯 新奇한 것이 실상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다. 다만 無心히 지나치지 않고,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 독특함이 시야에 들어온다. ‘奇’字 평어와 관련된 시를 잘 짓는 시인은 일상을 통찰하고 그 속에서 특징적인 면을 포착해서 詩化함으로써 독창적 표현이 주는 문학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그럼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日常에 기반한 독창성의 즐거움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다음 시화에서는 술을 노래한 林億齡(1496-1568)의 작품에 주목하고 있다.

근래에 석천 임억령이 시에 능하기로 유명했다. 어떤 사람이 술에 관한 시를 지어달라고 청하며 ‘甘’字 韻을 불렀다. 임억령은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이르기를,

老去方知此味甘 늙어 가면서 바야흐로 이 맛이 좋은 줄을 알았네.

또 ‘三’字를 불렀다.

一盃通道不須三 한 잔만 마셔도 도에 통하니 석 잔까지 가지 않네.

‘男’字를 부르니 곧 답하기를,

君看嵇阮陶劉李 자네는 혜강·완적·도잠·유령·이백을 보라.

不羨公侯伯子男 공·후·백·자·남이 부럽지 않다네.

참으로 기이한 작품이다. 나는 감탄한 나머지 이에 차운하여 자손에게 경계하기를,

21) 世人厭平常而喜新奇，不知言天下之至新奇，莫過于平常也。日日常而千古常新，布帛菽粟常而寒能煖，饑能飽，又何其奇也。是新奇正在于平常，世人不察，反于平常之外覓新奇，是豈得謂之新奇乎。(李贄，「焚書」第二卷，『復耿侗老書』，『明代文學批評資料彙篇』，臺北：成文出版社，1979.)

曾聞大禹飲而甘 일찍이 우임금도 마시고 좋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嗜酒全身十二三 술을 좋아하고 몸을 보전한 이는 열에 두셋 정도지.
 勿把一盃宜戒慎 한 잔도 잡지 말고 마땅히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
 須知遠色是貞男 모름지기 색을 멀리하는 자가 곧은 사내라네.

임억령의 뜻을 반대로 했으나 시는 훨씬 뒤떨어진다.²²⁾

유사 이래로 술은 인간과 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온 기호품이다. 특히 시인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그래서 술에 대한 예찬이나 경계의 시는 옛부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어졌으므로 그리 특별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억령의 시가 '奇作'이라는 평을 받은 이유를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奇人이라고 하면 보편적 사고의 범주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모범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술에 관한 시도 술의 속성을 도덕적으로 경계한 시보다는 자유롭게 칭송한 시에서 독특한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인지 이 시는 술의 속성을 일관되게 칭송하고 있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인생의 깊이를 알아가는 법인데 제1구에서 시인은 늙어갈수록 술맛을 알아간다고 했다. 여기서 시인은 술과 인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는 것이 늘어 갈수록 모르는 것도 늘어가듯 삶을 알아갈수록 또 다른 의문은 자꾸만 쌓여 간다. 그래서 술이 벗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술맛을 알게 된다는 말에 함축된 의미

22) 近有石川林公億齡, 以能詩名. 有人請賦酒詩, 呼甘字韻, 林即應聲曰, 老去方知此味甘, 又呼三字, 應聲曰, 一盃通道不須三. 呼男字, 應聲曰, 君看嵇阮陶劉李, 不羨公侯伯子男. 眞奇作也. 余歎賞之餘, 乃次其韻, 以戒兒孫, 曾聞大禹飲而甘, 嗜酒全身十二三. 勿把一盃宜戒慎, 須知遠色是貞男. 反林之意而詩則不及, 遠矣. (沈守慶, 『遺閑雜錄』 第3話, 『詩話叢林』 第2卷)

라고 할 수 있다.

인생에 이어 제2구에서는 道를 말했다. 도를 통한다고 할 때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절제된 자기 수양의 자세인데 시인은 오히려 음주를 이야기했다. 상식에 역행하는 파격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석 잔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데서 시인의 달관자적 자세마저 느끼게 된다.

이처럼 제1·2구에서는 오직 자기의 내면적 깨달음과 관련해서 술에 대해 읊었는데 형식보다는 그 내용적 측면에서 참신함을 느끼게 된다.

제3·4구에서 시인은 외부의 인물로 시선을 돌리면서 시어 활용상의 재미를 통해 새로움을 창출하고 있다. 嵇康·阮籍·陶潛·劉伶·李白은 술과 시를 벗하며 세상에서 벗어난 삶을 추구했던 인물들이다. 반면 公·侯·伯·子·男은 爵位名으로서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조적인 내용을 人名과 官名의 형식을 빌려 대구로 나타냈는데 이 시의 독창성이 있다. 시인은 진정한 행복이란 자기 만족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에 이처럼 외적 상황에 초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임억령의 시는 일상에서 늘 가까이하는 술을 소재로 했다. 그리고 술에 대한 경계가 아닌 즐기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일반적인 인식에 머무르지 않았다. 게다가 표현면에서 言語遊戲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함으로써 독창성을 확보했다. 이처럼 기발한 시적 발상에 바탕을 둔 독창적인 시를 짓는 과정에서 시인은 문학적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반면 임억령의 시에 차운한 심수경의 시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시인 스스로가 임억령의 시와는 수준 차이가 난다고 평했듯이 함축미가 전혀 없는 평범한 시가 되고 말았다. 이런 시에서 시인이 作詩의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낄 리는 만무하다. 여기서 ‘奇作’과 ‘凡作’이 결정되는 것이다.

2. 高揚된 情緒의 表出로 인한 淨化感(catharsis)

『論語』「述而」篇을 보면 “子不語怪力亂神.”(공자께서는 괴이함과 용력과 패란과 귀신의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다.)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처럼 성리학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치를 궁구함이 지극하지 않고서는 밝힐 수 없는 일 즉 ‘奇’字적 특성을 보이는 일에 대해서 삼가는 입장을 취했다.

이것은 天理의 節文인 禮에 관한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²³⁾(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動하지 않는 것이다.)이라는 구절과도 넓은 의미에서 一脈相通한다. 여기서 禮가 아니라는 것은 인간의 常道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大東奇聞』 등 奇異한 일을 소개한 여러 逸事集의 존재는 금지하는 것일수록 더욱 추구하고 싶어하는 인간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怪力亂神의인 시적 소재는 비현실적인 것, 용력에 관한 것, 기괴한 것, 신비한 것, 상상적인 것, 무시무시한 것, 기세등등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은 이런 비일상적인 것에 대해 경계심과 두려움을 가지므로, 일단 이러한 소재는 마음 한 구석에 쌓여 있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가슴 속을 가득 메웠을 때 인간의 정서는 한껏 고양되는데 그때 이러한 소재들에 대해 말하고 드러냄으로써 카타르시스 즉 淨化感을 느끼게 된다. 공포 영화나 비극을 보고서 마음이 淨化됨을 느끼듯이 인간은 자신의 정서를 高揚시키는 내용을 외부로 노출시킴으로써 해소감을 맛보는 것이다. 이는 최면을 통해 심리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그래서 평소에는 본인도 인식하지 못했던 일들을 말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노이로제나 강박

23) 『論語』「顏淵」篇.

증을 치료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이다.

이처럼 억압되어 있던 정서를 시를 통해 방출했을 때의 쾌감이 바로 문학적 즐거움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奇’字 평어와 관련된 시가 주는 淨化感은 비일상적인, 비현실적인, 다듬어지지 않아서 거친, 여과되지 않은 정서를 생생히 표출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시를 통한 이러한 정서적 경험은 마치 ‘段階的 鈍感化(systematic desensitization)’나 ‘자극홍수법’처럼 怪力亂神的인 시적 소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없이 인간의 불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효과²⁴⁾도 있다. 그럼 실제 작품을 통해 高揚된 情緒의 표출에서 오는 淨化感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

다음 시는 鄭士龍(1491-1570)의 <荒山驛>시로서 ‘奇杰’하다는 평을 받았다.

호음의 「황산역」시에 이르기를,

昔年窮寇此殲亡	옛날 궁지에 빠진 왜놈들 여기서 다 죽일 때,
鏖戰神鋒繞紫芒	무찌르든 칼날에는 별건 기운이 서렸었지.
漢幟豎痕餘石縫	한나라 깃발 세웠던 흔적은 돌틈에 남아 있고,
斑衣漬血染霞光	반의에 젖은 피는 놀 빛에 물들었다.
商聲帶殺林巒肅	가을 바람 소리 살기를 띠니 숲도 스산해지고,
鬼燐憑陰撲壘荒	도깨비불 어둠 속에 번쩍이니 성채가 황량하구나.

24) 불안을 없애는 데 사용되어온 행동치료기법에는 段階的 鈍感化(systematic desensitization)란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불안을 느끼는 不安位階(anxiety hierarchy)를 작성한 뒤 가장 낮은 단계부터 상상하기 시작해서 높은 단계에 이를 때까지 공포감을 느끼지 않게끔 근육을 이완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자극홍수법이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처음부터 가장 심한 불안을 일으키는 상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을 불안에 흠뻑 젖도록(flooded) 하고 이를 통해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공포의 실체와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다.(장현갑 외, 『心理學入門』, 교육과학사, 1993, pp.360-362 참조)

東土免魚由禹力 우리가 魚肉 면한 것은 禹임금의 힘 때문이니
小臣摸日敢揄揚 小臣이 임금님을 숭양하며 감히 찬양하네.

奇杰하고 渾重하니 참으로 奇作이다. 절강 사람 吳明濟가 보고 비평하기를, “네 재주가 용을 잡을 만한데 도리어 개를 잡았구나.”고 하였으니 아깝도다! 대개 唐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또한 어찌 하찮게 여기겠는가.²⁵⁾

특정 장소는 어떤 사건과 연상 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荒山은 이성계가 왜적을 크게 물리친 과거의 격전장이었다. 시인은 황산역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마주치자 불현듯 왜구에 대한 적개심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의 분노는 가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잔인함을 깨워서 마치 자신이 전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감정에 몰입하게 되었다. 시인의 이러한 정서는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데까지 이어져 작품 자체가 시인의 온갖 감정을 표출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었지만 평소에는 이성을 유지해야 하기에 드러내기 어려웠던 정서들을 시를 통해 표출함으로써 카타르시스라 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적 淨化感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奇'字 평어의 시를 통해 느끼는 시인의 문학적 즐거움이다. 그리고 시인의 마음에는 이러한 정서의 표출에 따른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일상에서 편히 드러낼 수 없었던 情緒上의 금기를 이처럼 시를 통해 껌으로써 불

25) 湖陰荒山驛詩曰, 昔年窮寇此殲亡, 鏖戰神鋒繞紫芒. 漢幟豎痕餘石縫, 斑衣漬血染霞光. 商聲帶殺林巒肅, 鬼燐憑陰堞壘荒. 東土免魚由禹力, 小臣摸日敢揄揚. 奇杰渾重, 眞奇作也. 浙人吳明濟, 見之批曰, 爾才, 屠龍, 乃反屠狗. 惜哉. 盖以不學唐也. 然亦何可少之.(許筠, 『惺叟詩話』 第36話, 『詩話叢林』 第3卷)

안감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학적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작품을 보면 首聯은 분노로 가득찬 시인의 생생한 전장 묘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鏖戰’·‘紫芒’이라는 시어에서 현장감이 그대로 전달된다. 頤聯에서는 백 년전 전장의 흔적을 보며 당시 왜적의 옷을 물들이고 나아가 이곳을 물들였을 붉은 피를 떠올리고 있다. 이런 사실적인 묘사에서 시인의 정서가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頸聯에서는 鬼氣가 느껴진다. 옛 전장에는 당시의 원혼들 때문인지 殺氣마저 감돌며 을씨년스런 가을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주변의 숲도 스산한 것이 전체적으로 으스스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 게다가 밤이면 도깨비불마저 허공을 떠다니 폐허로 남은 성채가 더욱 황막해 보이는 것이다. 이 頸聯에 대해 홍만중은 『小華詩評』에서 ‘勁悍’하다고 평했다. ‘勁悍’은 시구의 풍격이 역세고 사나운 것을 뜻하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나 시어에서 그러한 시풍이 충분히 감지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마지막 尾聯까지 이어진다. 살육을 뜻하는 ‘魚肉’이라는 원색적인 시어의 사용에서 그러한 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상상만으로도 전율감이 들게 한다. 시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성계의 공업을 찬양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시를 마무리 지었다. 이러한 반전은 시인이 다시 이성을 되찾은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는 인간을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는 여러 정서를 복합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기괴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시인에게 심리적 淨化感이라는 문학적 즐거움을 주었다. 이러한 시적 면모가 ‘奇’字 풍격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시의 경우 난삽한 典故와 험박한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의 해석을 매끄럽지 않게 한 점도 ‘奇’字 평을 받은 이유가 될 것이다. 여기서 정사룡의 江西詩派의 作詩風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杜詩風을 강하게 풍기고 있기에 浙江人 오명제가 애석한 마음에서 '용을 잡을 재주로 개를 잡았다.'고 평한 것이다. 海東江西詩派는 시인들간의 인맥 관계를 고려할 때 이후에 대두하는 唐詩風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다. 海東江西詩派의 시 세계는 唐風과 宋風이 혼효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계승한 후대의 시인들은 唐風을 더욱 발전 시켰던 것이다.²⁶⁾ 끝으로 위의 시에 대한 '杰'字 평어는 장수로서 이성계의 뛰어난 資質과 위대한 功業을 읊은 데 근거했다.

IV. 結論

본고에서는 洪萬宗(1643-1725)의 시화집인 『小華詩評』(1675)과 그가 편찬한 『詩話叢林』(1712)을 텍스트로 하여 '奇'字 평어 작품의 美感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奇'字 평어와 관련된 문학적 즐거움에 대해 고찰했다.

제II장에서 검토한 '奇'字 평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특이하다는 점인데, 이것은 새로움·신기함·애매함·기괴함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이함은 표현 방식상의 독특함과 비현실성에서 오는 경이감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詩語에 반영된 기발한 시적 발상이나 함축적이고 모호한 표현에서 오는 多義性 등은 표현 방식상의 독특함에 속하며, 시적 분위기가 기괴하다든지 상상적인 요소를 통해 강한 기세감을 표출한 것은 비현실성에 기인한 경이로움에 해당한다.

제III장에서는 '시인의 마음을 끄는 어떤 힘'의 존재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奇'字 평어와 관련된 문학적 즐거움에 대해 고찰했다. 이는 시인의 입

26) 이종묵, 『海東江西詩派研究』, 태학사, 1995, pp.66-67, 283, 306 참조.

장에서 풍격평어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특정 평어의 작품이 시인의 심리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奇’字 평어의 시를 창작함으로써 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시인이 느끼는 창작의 희열이란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자기 所作에 대한 감동이므로 시인은 작자인 동시에 자신의 시를 감상하는 독자가 된다. ‘奇’字評을 받은 작품의 미감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그 문학적 즐거움이란 일상에 기반한 독창성의 구현과 고양된 정서를 거리낌없이 표출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淨化感(catharsis)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본고의 한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奇’字와 결합하는 두 번째 평어의 역할과 의미를 상세히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일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論語集註』, 成百曉 譯註, 전통문화연구회, 1993, 390쪽.
『大學·中庸集註』, 成百曉 譯註, 전통문화연구회, 1995, 117쪽.
『周易傳義(上)』, 成百曉 譯註, 전통문화연구회, 1998, 636쪽.
『周易傳義(下)』, 成百曉 譯註, 전통문화연구회, 1998, 636쪽.
『明代文學批評資料彙篇』(臺北:成文出版社, 1979), 931쪽.
『中文大辭典』(臺北:中華學術院).
- 김선기, 「小華詩評 研究」,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1993, 271쪽.
박수천, 「徐居正의 文學批評」, 『徐居正 文學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pp.169-234.
申景濬, 『旅菴遺稿』.
안대희 譯註, 『對校譯註 小華詩評』, 국학자료원, 1995, 376쪽.

- 오영석 譯註, 『譯註 小華詩評·詩評補遺』, 민속원, 1994, 329쪽.
- 이종목, 『海東江西詩派研究』, 태학사, 1995, 418쪽.
- 임종욱, 『중국문학에서의 문장체제 인물 유과 풍격』, 이회문화사, 2001, 513쪽.
- 장현갑 외, 『心理學入門』, 교육과학사, 1993, 419쪽.
- 정 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776쪽.
- 정하영, 「古典批評用語에 대한 이해와 近代의 문제」, 『중국어문논총』 제20집, 중국어문연구회, 2001, pp.361-379.
- 차주환, 「唐代的 風格論(上)」, 『心象』 제5호, 심상사, 1974, pp.128-138.
- 崔 滋, 『補閑集』.
- 허권수·윤호진 譯註, 『譯註 詩話叢林(上)』, 까치, 1993, 394쪽.
- , 『譯註 詩話叢林(下)』, 까치, 1993, 360쪽.
- 洪萬宗, 『小華詩評』, 연세대 소장본.
- 編纂, 『詩話叢林』, 아세아문화사 影印, 1973.
- 홍찬유, 『譯註 詩話叢林』, 동문관, 1993, 1479쪽.

K C I

ABSTRACT

A Study on 'Gi'(奇) Letter Remark Poetry

Jeong, Si-Youl

This thesis which is about a remark used in a style criticism took 『Sihwa-chongrim』(詩話叢林, 1712) compiled by Hong ManJong(洪萬宗, 1643-1725) and his Sihwajip, 『Sohwasipyong』(小華詩評, 1675), as text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go over an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a poetry and literary pleasure related 'Gi'(奇) letter remarks.

Poetry related to 'Gi' letter remark were discussed in the side of uniqueness of expression techniques and wonder from unreality. It can be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which could be pointed out from the work related to 'Gi' letter remark is particular. It can be seen in many kinds of types such as freshness, novelty, vagueness, and weirdness.

Poetry of 'Gi' letter remark were related to literary pleasure. It is because that a poet is happy when he/she composes a poem. Literary pleasures given by poetry of 'Gi' letter remark are caused by originality that comes from creation of new expression and psychological catharsis that comes from liberal expressions of strange and unusual emotion.

Key Words Style Criticism, Sihwa, HongManJong, Sohwasipyong, Sihwachongrim

논문투고일 : 2006. 5. 15

심사완료일 : 2006. 5. 29

게재확정일 : 2006. 6. 12